

“윤회-무아 병합 공존 교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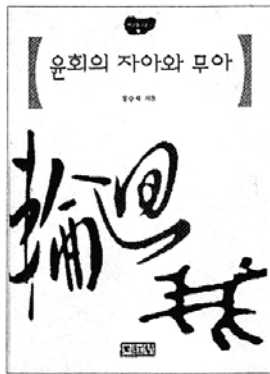
정승석교수 ‘윤회의 무아와 자아’

‘자아와 무아’ ‘업과 윤회’는 불교 교리 연구의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주제들이다. 외국의 경우 무아설과 윤회설의 관계에 대해 논의된 연구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서로 상충되는 이론인양 이해되던 윤회설과 무아론의 난점을 해소시키려는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정승석(동국대)교수는 <윤회의 무아와 자아>(장경각 판)에서 “불교에서 영혼과 같은 윤회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회를 인정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불교윤회설의 의의는 자기의 행위인 업의 전환을 통해 자기 개조가 가능함을 세속의 통념으로써 자각하게 하는데 있다. 즉 인간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존재로서의 ‘자기’를 지향해야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윤회설의 취지”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무아설은 불교의 본질이자 원의(原義)를 대변하고 윤회설은 대중구제의 방편으로서 설시(說示)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불교에서는 무아설과 윤회설이 ‘모순인 채로 공존하는 교설’이 아니라 ‘병합이 전제되어 공존하는 교설’이라는 사실에서 불교 윤회설의 특수성이 인정된다”는 정승석 교수는 “연기적인 세계의 생성 변화과정은 어떤 기체(基體)로서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제시한다. 무아설과 윤회설이 지시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가치와 이것의 추구에 부합하는 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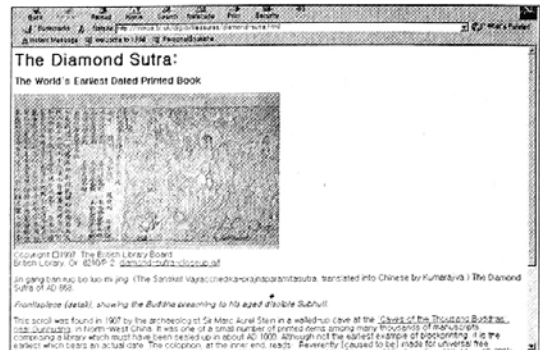
삶이라는 것이다. 윤회설은 깨달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범부의 세계를 반영하고 범부가 이해하고 구사하는 방식이나 언어로써 무아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게 정승석 교수의 논점이다. “불교의 무아설이 비아(非我)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정승석 교수는 “이 비아적 표현도 결국은 무아설의 범주 안에 있으며, 그것은 별개의 비아설로서가 아니라 무아설의 일환으로서 구사된 것”이라고 말한다

“윤회나 무아나 상충요소 해결점 유식학의 알라야식”

‘무아윤회’ 업의 DNA에 의해 윤회 복제 가능

다. 이 비아적 표현은 형이상적인 문제에 대해 단정적인 대답을 기피했던 무기(無記)와 상통하는데 이 무기의 이면에 있는 자각내용은 연기(緣起)와 중도(中道)라는 주장이다. 즉 비아적 표현의 궁극적인 귀결은 연기와 중도라는 자각의 내용에 이르며 이 자각의 체함에 도달하면 무아 관념 자체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 윤회설과 무아설은 상충하는 교설이 아니라 ‘범부의 나’에 의한

전생(轉生)과 수행자가 지향하는 ‘각자(覺者)의 나’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정승석은 무아설이든 윤회설이든 그 핵심은 ‘나’의 문제로 집약된다고 지적한다. 또 유식학에서 제시하는 ‘알라야식’이 불교사상사에서 무아설과 윤회설의 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의의와 가치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한다. 알라야식은 업의 잠재력인 습기(習氣)이며 이는 무아적 존재인데도 알라야식 자체의 양면적 기능과 이해의 가능성은 그대로 무아와 윤회의 양립을 반영한다. 정승석은 알라야식을 내세우는 유식학은 무아설 해석의 전통에서 중도적 위치에 있다고 설명한다. 알라야식이 윤회의 주제이자 해탈의 주제이기도하다는 것이다. 정승석 교수는 무아윤회의 의미를 과학적 용어를 이용해 “아트만이라는 생식 세포에 의해서만 윤회라는 복제가 가능하다는 고정 관념, 즉 유아(有我)윤회를 깨뜨리고 업이라는 체세포 DNA에 의해 윤회라는 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아윤회이다”라고 설명했다. 무아윤회는 업의 자기복제, 체세포에 의한 복제는 업이 타력에 의해 복제되는 ‘업의 의타(依他)복제’라는 것이다. 장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교리공부 사이트

인터넷을 이용해 불교 교리를 공부할 수는 없을까? 전자 가상공간에서는 불자 네티즌이 언제든 지 <금강경>을 영문과 영어본으로 읽고, 불교학자와 일반불자들이 정리해 놓은 부처님 가르침을 열람할 수 있는 곳, 교리 사이트들이 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웹마스터 리드 마에서 수집한 텡린록(Tung Lin Kok)의 부처님 생애 삽화들이 진귀한 볼거리. ‘불교와 사회’ 등 정보제공 ▲불교와 동양철학(Buddhism & Eastern philosophies) 사이트는 ‘불교와 교리’, ‘불교와 사회’, ‘동양철학’, ‘온라인 토론’ 등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교사와 교리에는 서방불교 대교우회 회장 상가라시타가 불교와 부처, 수행관, 불교와 죽음 등을 주제로 쓴 글과 폴 몰리나대학 제랄드 그로우교수가 쓴 사서제와 팔정도, 참선, 불교의 세계관 등이 제공된다. 불교와 사회에는 록케이트대학 비터 맨스필드 교수의 ‘대승불교와 현대 물리학의 시간관’을 비롯해 이 사이트를 개설한 데이비드 로이가 부처님이 인도 바라나시에서 설교했던 고·중·음·윤회 등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이용자의 견해를 온라인상에서 토론하고 유교·도교 등도 정리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올해로 창립 80주년을 맞은 광명수양회와 대한불교진흥원은 ‘법보와 현대생활’을 주제로 첫 교학연구회를 열었다.

불교진흥원-일 광명수양회 교학연구회

“한-일 불교공동체 형성하자”

“한국과 일본 양국의 불교가 초기부터 공유해 왔던 것은 대승 불교의 핵심정신이 집약된 <화엄경>의 높은 이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른 정치와 경제위주의 생활로 인하여 이러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대한불교진흥원과 일본 광명수양회가 3일 공동으로 주최한 불교교학연구회에서 ‘법보와 현대생활’을 주제로 발표한 가와 나미 아키라 교수(일본 동양대)는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일양국은 서로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와 나미 교수는 “현대인들은 영불삼매의 생활화를 통해 번뇌를 끊고 안정된 생활과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영불신앙의 실천방법과 형태’를 발표한 보광스님은 불교의 신앙방법을 영불의 회수를 중시하는 수량신앙과 영불의 기간을 중시하는 일수신앙으로 구분했다. 수량신앙은 일본정토신앙의 큰 유형을 형성하고 있고 일수신앙은 만일 영불철학을 통해 한국 정토신앙의 특색으로 자리잡았다는 주장이다. 장지연 기자

“종교선택시대의 불교역할 ‘지혜의 종교’로 인류공헌”

민희식교수 주장

“깨달음은 구제력과 관계가 있고 불교는 인생의 문제점을 완전하게 풀어나가는 가르침이므로 불교를 통하여 한국은 새롭게 일어나 인류 사회에 공헌을 해야 한다.” “종교 선택 시대의 불교의 역할”을 고찰한 논문에서 민희식 교수(한양대)는 지혜를 통해 발전을 지향하는 인간은 자비심을 습관으로 몸에 지니고 발전의 부문을 거기에

연결시켜 이 세상을 불국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불교가 바탕을 두고 있는 자력사상, 불인합일형(佛人合一型), 성선설, 지혜, 공경성, 관용, 윤회전생, 연기법, 자비사상 등을 더욱 발전시켜 미래를 책임지는 종교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교수는 “불교는 원래 ‘지혜의 종교’이지만 대승불교에 있어서 ‘신앙의 종교’가 됐다”고 말한다.

진각종 통리원 문사부장 무의정사

‘대승장엄보왕경’ 연구로 인도 델리대서 박사학위

산스크리트어 산본본 <대승장엄보왕경>의 비평적 편집과 영문번역, 그리고 그 내용의 비평적 분석을 시도해 경전 전체를 처음으로 연구한 논문이 발표됐다. 인도 델리대학 불교학과에서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무의정사(선상군·진각종 통리원 문사부장)는 전체 32장으로 나누어진 <대승장엄보왕경>은 최소한 6세기 이전에는 성립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대승장엄보왕경>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관자재보살의 박애적 활동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도 관자재보살의 개념, 육자진언의 성격, 재가성지자의 존중 사상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 관자재보살은 구원자로 우주의 존재 그 자체로 우주의 창조자로 부처님의 고유한 능력인 수기를 주는 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특징. 또 관자재보살의 본심으로 규정되고 있는 육자진언 ‘율마니반메롬’이 모든 법 가운데 가장 높고 심오한 법이라고 설파되고 있다. 무의정사는 “구체적인 육자진언의 염승법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육자진언의 행법으로서 만다라를 설치하거나 인계를 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는 <대승장엄보왕경>은 밀교의 삼밀수행법이 갖추어져 가는 과정에 성립된 과도기적 경전”이라고 분석했다. 장지연 기자

인간부처에서 영원의 부처로 되면서 인간성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모습이 신앙이 되면 강한 구제력이 생긴다는 것. 이와함께 오늘날 극심한 환경오염을 환경의 파괴율로 인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서로 관련을 지니고 있다는 부처님의 연기법에 대한 가르침이 환경문제 해결의 핵심사상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불교의 생명존중사상과 무소유의 삶, 만물의 본질적 가치와 존재사이의 관계를 밝혀주는 화엄사상이나 윤회사상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민희식 교수는 결론짓는다. 장지연 기자

중에도 관자재보살의 개념, 육자진언의 성격, 재가성지자의 존중 사상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 관자재보살은 구원자로 우주의 존재 그 자체로 우주의 창조자로 부처님의 고유한 능력인 수기를 주는 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특징. 또 관자재보살의 본심으로 규정되고 있는 육자진언 ‘율마니반메롬’이 모든 법 가운데 가장 높고 심오한 법이라고 설파되고 있다. 무의정사는 “구체적인 육자진언의 염승법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육자진언의 행법으로서 만다라를 설치하거나 인계를 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는 <대승장엄보왕경>은 밀교의 삼밀수행법이 갖추어져 가는 과정에 성립된 과도기적 경전”이라고 분석했다. 장지연 기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쫄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0,000), 솔효소정액(2월 ₩500,000)
 익수영진고 (2개월 ₩1,000,000), 치신왕기환(3개월 ₩500,0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어른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뼘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해명 합장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인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 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총복 제천시 청혜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혜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범룡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藤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실 올림

함께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식품 물질로 지목

함께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 효과가 입증된 「세시미」 성분 대량추출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